해남사랑상품권 1000억 유통…지역경제 이끈다

농어민 공익수당·공직자 복지후생·각종 수당 등 지급
재정 도구 활용…지역 자금 외부유출 방지·소비 확대

해남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을 올해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판매액 8323억원을 달성하며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 상품권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한해 동안 1525억원을 발행, 1591억원(2024년 이월액 포함)을 판매하는 최대 기록을 세웠다. 누적판매액도 8300억원을 돌파하며 해남사랑상품권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 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해남사랑상품권은 해남군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할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3900여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등 군내 어디서나 지역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한 할인판매 등으로 상품권 사용이 돈버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군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행태로 자리잡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종 재난지원금과 전국 최초로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 초·중·고 입학지원금 등 각종 정책수당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한 해남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된 모범적인 상품권 운용 모델로 꼽히고 있다.

올해도 2026년 공직자 복지포인트 약 20억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가운데 해남군은 올해 정책수당용 상품권 유통량을 15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분기 내 집중 할인판매를 실시해 조기에 경기활력을 이끌어내고, 자금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한달간 총 70만원 한도로 12%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결제 시 3% 추가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공직자 복지 증진 등 각종 정책 수당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역내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지역상품권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내실있는 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소송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 과정에서 목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질적인 수혜 기반을 확보하고자, '목포시 미래전략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목포, 전남·광주 행정통합 선제 대응한다

미래전략 TF 가동…지역 역할·수혜 전략 체계적 접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전담조직을 꾸려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 과정에서 목포시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질적인 수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목포시 미래전략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행정·재정·산업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통합 논의 단계부터 통합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응 기구다.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소·단장이 참여하는 범부서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행정통합 논의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국별로 제도·재정·권한 특례 법안과 정책 과제를 검토해 목포시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행정통합이 시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재정·권한·제도 특례를 중심으로 통합 과정에서 목포가 확보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정리해 전남도와 중앙정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강진, 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 본격화

읍내 폐창고·빈집 정비…광장·쉼터·주차장 조성

강진군은 강진읍 서성리 일원에 노후·장기방치시설을 정비해 주민 생활공간 확충을 통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강진읍 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까지 총 47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정비지구 면적은 3098㎡로, 강진읍 주요 진입부에 위치한 노후·불량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성지구는 국도와 인접한 강진읍 관문 지역으로 폐양곡창고, 장기방치건물, 빈집 등 유해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안전 우려, 지역 이미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폐양곡창고 등 철거 후 광장과 공영주차장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광장과 쉼터,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은 물론, 강진읍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쾌적한 농촌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서성지구는 강진읍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장기방치건물 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매우 높았던 지역이다"며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광장과 쉼터, 주차 공간을 조성해 강진읍의 첫인상이 바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월까지 폐창고 등 노후·방치시설을 우선 철거하고 향후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진=이진묵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송정역 시외버스, 주말 운행 확대

KTX 연계 고려…경유 시간 조정·주말 해남역 경유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송정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주말에 왕복 2회로 확대 운행한다.

시외버스 노선은 기존 송정역 경유 시간을 KTX 운행 시간과 여유있게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철도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높이고, 주말에 한해 운행되는 추가 운행 1회는 해남역을 경유해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왕복 1회만 운영됐지만 주말 추가 운행을 통해 해양치유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시간은 평일과 주말의 경우 광주 유스퀘어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 송정역(9시 50분)을 경유, 완도해양치유센터(11시 50분), 완도공용버스터미널(12시 10분)에 도착한다.

상행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오후 5시 10분에 출발, 완도해양치유센터(5시 30분), 광주 송정역(7시 30분)을 거쳐 광주 유스퀘어(7시 50분)에 도착한다.

주말 추가 노선은 출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며 광주(유스퀘어)↔완도해양치유센터 1만8900원, 광주 송정역↔완도해양치유센터 1만7400원, 해남역↔완도해양치유센터 9400원이다.

승차권은 현장 발권 또는 모바일 앱(티머니GO)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여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경유 시간을 조정했다"며 "주말 추가 노선 운행이 관광객 교통 편의 증진과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